

*The Cure at Troy*의 정치성

全 善 玉

I

*The Cure at Troy*는 Seamus Heaney의 유일한 희곡이다. Heaney는 1995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시인으로 사실적이고 향토색 짙은 초기 시들을 통해 그가 태어난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민족정서를 잘 담아내어 민족시인으로 불리우곤 한다. *The Cure at Troy*는 그의 흠냄새 나는 시들 못지 않게 아일랜드의 상황이 배경화 되어 있으면서, 시인으로서의 그의 자질이 무대와 조화를 이루어내는 극작품이다. Heaney의 연극 시도는 Brian Friel, Seamus Deane 등과 함께 Field Day Theatre Company에 참여한 것이 동기가 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가 트로이 전쟁 신화를 소재로 하여 Sophocles의 *Philoctetes*를 선택하여 변안한 것은 *Philoctetes*가 시적 기교의 무대화에 가장 적합한 극으로 보인 점이 고려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Marianne McDonald는 아일랜드의 작가들이 고전을 소재로 한 작품을 즐겨 쓰고 있음을 예거하면서, 서양문화권의 문학 전통 맥락에서 고전을 사용함으로써 현대적 창작물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경향이 점차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아일랜드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고전과의 연관이 활발한 원인을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서 찾는다. 일종의 식민정책으로 영국인들로부터 야만인 취급을 받아온 아일랜드인들이 영국인으로부터 고전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는 그것을 그들의 국가적 관심사를 표현하는 데 적용함으로써 고전을 시적 무기요 담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

*The Cure at Troy*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북아일랜드 상황도 근본적으로 영국의 식민 역사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 식민정책의 전통과 후기식민의 상황이 개인의 실존에 미친 절대적인 영향을 몸소 체험하고 절감하며 성장한 Heaney로서, McDonald가 지적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고전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내재적 의미를 확장시켜주는 효과와 함께 설득력 있는 담론의 기반이 된다.

트로이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상황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인 도덕성과 정치성을 묻고 있는 Sophocles의 *Philoctetes*가 원전인 Heaney의 현대극에서 고전적인 상황과 질문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제기되고 있는지를 구명해보기 위해서는, 트로이전쟁 대신 현재의 북아일랜드의 상황을 비롯한 극 주변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II

1) McDonald, Marianne, Seamus Heaney's *Cure at Troy*: Politics and Poetry, *Classics Ireland*, 1996 Vol. 3, University College Dublin, Ireland 참조.

북아일랜드의 정치사는, 지형학적 입지조건에 따른 스코트랜드 이주민들의 꾸준한 아일랜드 정착과 본격적인 영국의 식민정책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왔다. 침략의 역사만 해도 800여년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16세기 헨리 8세의 침략, 그리고 1800년의 양국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영국인들이 부단히 완전한 독립국으로서의 아일랜드의 위상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역사로 이어져왔다. 그러는 사이 영국인들은 이런 저런 명분과 이유로 아일랜드의 북쪽 지역에 계속 정착해갔고 북아일랜드 지역의 영국인구 증가와 더불어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식민통치는 20세기 초까지 필연의 역사처럼 이어져갔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의 제국주의가 힘을 잃어가던 시기에 이르러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면서 오히려 아일랜드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가시화되어 전 지구촌의 관심사가 된다. 영국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이 지배층이요 다수를 형성해온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가 영국령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영국령으로 남아있기를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아일랜드로서 통일을 원하는 소위 공화국파(Republicans)와 치열한 갈등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 북아일랜드의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은 소위 영국통합파(Unionist)로 불리며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수혜자로서의 위상을 고수하며 영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투쟁을 감내한다. 토착민 아일랜드인이면서도 영국계 아일랜드인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오며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위협 받아온 북아일랜드의 공화파들은 폭력을 불사하고까지 그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에 나서게 되고 양측의 갈등의 골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로 치달는다. 더욱이 양측은 종교적으로도 천주교와 개신교로 양분되어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정신적 배경을 제공하기까지 한다.

1968년에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리면서 천주교도 아일랜드인들의 인권항의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고 이에 대응한 개신교 영국계의 공격적 방어가 폭동사태로 치달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후 30여년 동안 이어진다. 이후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Belfast 시의 소위 Londonderry 지역에는 'Peace Wall'이라는 아이러니컬한 이름의 경계가 세워져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고도 복잡한 것인지를 웅변해주고 있기까지 하다.

사실 북아일랜드의 갈등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의 패러독스이다. 이 지역은 대영제도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비교적 자원도 있는 편이고, 사람들의 속성도 다정다감하고 친절하여, 적어도 외부인의 시각으로 이들은 하나의 동질사회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아일랜드의 기득권층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영국이야말로 폭력 없이 정치적 변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 비추어 볼 때, 지난 30여년 간의 폭력적인 투쟁의 상황²⁾은 지독한 패러독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통치 이상으로 후기 식민의 상황이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수구세력의 기득권 장악을 위한 집요한 정치적 행동들과, 곧잘 폭동화하는 소외세력은 각기 타협이 불가능한 기질로 성장해온 터인데다가, 심각한 빈곤과 문화적 불평등의 관행들이 민족적 자존심을 폄훼하는 상황에 이르면 사실상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러나 급세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사태의 해결 혹은 해소에 도움이 될만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발생하여 오늘의 진정국면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에는 무엇보다도 그 극심했던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아일랜드의 경제는 'Celtic Tiger'로 불리울 정도로 늘

2) 1969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북아일랜드의 폭동과 관련한 사망자는 총 3,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Northern Ireland Omnibus Survey'(1996)는 집계하고 있다.('Striking a balance: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Accord, Vol.8참조)

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여기에는 자국 내의 노력뿐 아니라 또한 여러 외부적 요인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EU의 노력이라든가, 미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 이민들의 미국정부를 통한 노력 등은 그러한 외부적 요인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영국의 위상이 약화되어 강약이라는 힘의 위상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자국 내에서도 결혼을 통해서 양측이 결합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등, 자연스러운 상황의 변화들이 일어난다. 특히 영국의 상대적 위상격하는 북아일랜드의 상황을 두 소수세력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자구 노력의 필요성을 양측 모두에게 절감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와같이 대내외적으로 호전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자국 내의 결정적인 노력이나 대타협이 없다면 그들이 소망하는 상황은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아일랜드 내의 공화파와 통합파, 혹은 개신교도와 천주교도 간의 대승적 화해와 용서는 더욱 절실한 요구로 다가온다. 바로 이렇게 양측이 서로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데 협조하기 위한 치유책(Cure)을 찾고자 하는 문학적, 신화적 탐색으로 Heaney의 *The Cure at Troy*를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III

*The Cure at Troy*를 보기 위해서는 Sophocles의 *Philoctetes*를 먼저 개괄해 볼 필요가 있다. Heaney의 작품은 Sophocles의 작품과 매우 흡사하여, 상당수의 관객이나 평자들이 거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현대 영어로의 변안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Philoctetes*가 제기하는 문제도 본질적으로 *The Cure at Troy*의 주제와 대동소이하거나 상통한다고 일단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상기해야 할 것은 Philoctetes라는 인물이나 그 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version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Philoctetes는 트로이 전쟁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Homer의 *Illiad*와 *Odyssey*에서 그 인물을 접할 수 있으며, 또한 Sophocles와 동시대 그리이스의 극작가인 Aeschylus와 Euripides의 동명의 희곡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 이후로는 *Cypria*와 *Little Illiad*에서도 약간의 변형이 가해진 같은 인물의 등장할 수 있고, 현대에 와서도 Heaney 이외에 Andre Gide나 Tom Stoppard 등의 작가가 동일 인물과 주제를 가지고 개작한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천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Philoctetes라는 인물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Homer의 서사시에서 그는 당연히 영웅이었지만, 후대에 와서 극작가의 펜으로 그려지면서 그는 비극적 주인공으로 변모해 있게 된다. 특히 Sophocles의 작품에서 그의 비극적 주인공으로서의 면모가 가장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평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서 이 비극성의 핵심은, 첫째 Philoctetes가 Lemnos 섬에 철저히 혼자 남겨졌다는 점의 강조와, 둘째 그렇게 혼자 남겨지게 된 경위의 부당성에 대한 부각이다. Homer의 서사시에서는 Philoctetes가 혼자 남겨졌다는 언급이 없고, 섬에 남겨진 경위와 Odysseus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적도 없으며, 따라서 그리이스인들의 소환 요청에 대해 Philoctetes가 그토록 분노할 까닭도 없는 것이다. 또한 다른 Philoctetes 주제의 작품들과 Sophocles의 극이 다른 점으로, Philoctetes를 데리러 Lemnos 섬으로 가는 인물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Homer의 작품에서 Lemnos 섬으로 가는 사람은 Diomedes이고, Aeschylus의 극에서는 Odysseus가 직접 가서 Philoctetes와 맞부딪치게 되며, Euripides의 극에

서는 Diomedes와 Odysseus가 함께 Lomnos로 향한다. 결국 Odysseus가 Neoptolemus를 내세워 분노와 비탄에 빠진 Philoctetes를 회유하며 극단의 가치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은 Sophocles의 창작인 것이다.

Sophocles의 *Philoctetes*는 B.C. 409년경 'the Great Dionysia'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비극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다소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는 Philoctetes라는 인물로써 실존의 비극성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킨, 극작가로서의 Sophocles의 면모가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트로이 전쟁 신화에서 Philoctetes는 Helen의 구혼자 중의 한사람으로 트로이 원정에 참여하여 출병하던 중 제물을 바치기 위해 신전에 들른 사이 물뱀에게 발을 물려 악취가 풍기고 고통이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이 악취와 고통의 비명 소리가 군대의 사기에 저해요인이 된다 하여 Philoctetes는 Lemnos 섬에 남겨지게 된다. 혼자 어렵게 연명을 하던 Philoctetes가 그리스군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은 그가 헤라클레스로부터 물려받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트로이의 예언자가 바로 그 활과 화살이 있어야지만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있다고 예언했던 것이다. 이 예언에 따라 Odysseus는 Lemnos 섬으로 Philoctetes를 찾아 나서게 된다.

극은 Odysseus가 Neoptolemus를 내세워 Philoctetes를 설득함으로써 활과 화살을 되찾으려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앞서 언급하였거니와, Neoptolemus가 Philoctetes를 만나 설득하여 활과 화살을 취하게 되는 것은 Sophocles의 설정으로써, 이 설정의 의미는 이 극의 성격창조와 비극성의 완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동시대의 거장 비극작가들인 Euripides나 Aeschylus만 해도 Lemnos 섬에 다른 거주민들이 함께 있던 것으로 설정하여 Philoctetes를 철저히 혼자 남겨두는 상황은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Sophocles의 *Philoctetes*는 공적인 임무수행의 과정에서 입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같은 민족인 그리스인들에 의해 십년째 홀로 무인도에 유기된 상태로 그려진다. 이러한 처사를 그리스인들의 그지없이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가피한 합목적적인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극의 발단이 현저히 달라지게 된다. 모욕적이고 부당한 처우를 받은 Philoctetes의 처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할수록 Philoctetes는 군사적 희생자요 민족적 순교자가 되는 것이며 아울러 인간과 동족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불신과 원망은 합리화되고 또한 비극적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동기이자 요인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부분은 작가들 사이에서나 학자들 간에도 매우 민감한 대목으로 여겨져 왔으며, Sophocles의 *Philoctetes*가 Philoctetes 주제의 극들 중 가장 훌륭한 비극으로 간주되게 하는 발판을 제공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Sophocles의 *Philoctetes*에서는 Philoctetes와 그리스인들 특히 Odysseus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 불신과 원망의 정도를 넘어선 거의 적대적 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Philoctetes의 적의의 과녁 밖에 있는 인물을 협상의 사자로 보내려니, 그 일련의 일과 전혀 무관하면서 Achilles의 아들로서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Neoptolemus가 선발된 것이다. 그리이스의 영웅 중에서도 영웅이라 할 Achilles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Philoctetes로 하여금 동료 군인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잠시 잊고 동경과 향수에 젖어 신뢰로써 Neoptolemus를 대하도록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이 극에서 Neoptolemus라는 인물은 Odysseus와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로서 성격 창조의 측면에서나 극이 제시하는 주제와 가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 개막장면에서부터 Odysseus와 Neoptolemus의 성격의 대조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Odysseus는 Neoptolemus에게 거짓의 책략을 주지시키며 Philoctetes를 회유하도록 사주한다. 이러한 책략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Neoptolemus에게 Odysseus는 그 임무의 국가적 의미를 상기시키고, 트로이 함락에 절대 필요한

그 임무의 완성이 그에게 가져다 줄 영광된 장래를 강조하여 그려 보여줌으로써 결국 Neoptolemus를 설득한다. 이 극에서 Neoptolemus는 시종일관 순수한 이상주의자로 나타나며, 상황 논리의 변통에 능한 희대의 책략가요 술수가인 Odysseus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대변한다. Odysseus가 Neoptolemus를 설득 회유하는 개막대사에서 Sophocles는 힘찬 수사와 술수로 가득 찬 현란한 웅변으로써 Odysseus라는 인물의 내면을 유감없이 그려내고 있다.

Ulysses. At length, my noble friend, thou bravest son
of a brave father -- father os us all,
The great Achilles -- we have reached the shore
of sea-girt Lemnos, desert and forlorn,
where never tread of human step is seen,
Or voice of mortal heard, save his alone,
Poor Philoctetes, Poeas' wretched son,
Whom here I left: for such were my commands
From Grecia's chiefs, when by his fatal wound
Oppressed, his groans and execrations dreadful
Alarmed our hosts, our sacred rites profaned,
And interrupted holy sacrifice.
But why should I repeat the tale? The time
Admits not of delay. We must not linger,
Lest he discover our arrival here,
And all our purposed fraud to draw him sence
Be ineffectual. ... (1)

세속의 책략에 관한 한 달인의 경지에 이른 Odysseus인 데다가 위와 같은 힘차고도 현란한 웅변은 순진한 이상주의자 Neoptolemus를 설득시킨다. 국가적, 민족적 대의명분은 Neoptolemus에게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eoptolemus를 만난 Philoctetes는 Odysseus의 예상대로 그가 Achilles의 아들이라는 소개를 받고는 어떠한 의심이나 원망도 없이 그를 맞는다. 게다가 Achilles가 죽은 후 그 유품을 놓고 벌어진 다툼에서 Odysseus가 계략으로 그것을 차지하게 된 과정에 대해 Neoptolemus가 얘기하면서 두 사람은 Odysseus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 두 사람의 대화 과정에서는 또한 자신을 절해의 고도에 유기한 사람들과 결탁하여 누리게 될 영화보다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단호히 주장하는 Philoctetes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공적인 합목적성이라는 명분과 개인적 도덕성의 가치라는 상반된 양면의 가치를 첨예하게 대립시킨다.

Philoctetes의 상처가 다시 발작을 일으켜 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Neoptolemus의 이상주의적 가치가 다시 드러난다. Philoctetes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활과 화살을 훔칠 수 있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Neoptolemus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또한 아니다. 이 장면은 마치 Hamlet이 기도하고 있는 숙부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님을 그의 내면의 가치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과도 흡사한 일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역시 Hamlet의 경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양면가치로부터 두 인물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현실의 대의적 명분과 상황논리는 그들의 이상주의에도 여지없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Neoptolemus는 눈을 속여 활을 수중에 넣지는 않지만,

일단 받은 활과 화살을 선뜻 Philoctetes에게 다시 돌려주지는 못하며, Philoctetes의 '자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경고의 외침도 Neoptolemus가 뒤늦게 받아들인 국가적 이상주의라는 명분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만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다 대승적이고 공적인 차원의 이상적 명분이 Philoctetes에게도 또한 적용되는 순간이 온다. Philoctetes의 경우 소위 'deus ex machina'라는 보다 강제적인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상징하는 국가적 영웅의 이상은 그토록 완강했던 Philoctetes의 마음을 일거에 돌려놓는다. 이러한 대단원의 처리가 아마도 Heaney로 하여금 *Philoctetes*의 변안극을 쓰도록 만든 주요 동기를 제공한 대목이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조국인 북아일랜드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바로 이러한 대단원과도 같은 극적인 전환을 무대라는 실험적이고도 강력한 응변적 힘을 가진 장을 통해 제시하고픈 작가적 열망을 당연히 품었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IV

사실상 Sophocles의 *Philoctetes*와 Heaney의 *The Cure at Troy*를 비교해보면 개막장면과 대단원의 처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Philoctetes*의 개막대사는 앞 장에서 인용한 바 있거니와, 이를 Heaney의 개막대사와 비교해보면 적지 않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Heaney의 개막대사는 Odysseus의 대사가 아닌 chorus로 시작한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의미나 문체가 Sophocles의 그것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Chorus

Philoctetes.

Hercules.

Odysseus

Heros. Victims. Gods and human beings.
All throwing shapes, every one of them
Convinced he's in the right, all of them glad
To repeat themselves and their every last mistake,
No matter what.

People so deep into
Their own self-pity self-pity buoys them up,
People so staunch and true, they're fixated,
Shining with self-regard like polished stones.

And their whole life admiring themselves
For their own long-suffering.

Licking their wounds
And flashing them around like decorations.
I hate it, I always hated it, and I am
A part of it myself.

...

(1-2)

Heaney는 Sophocles의 경우처럼 Odysseus의 힘찬 책략의 대사가 아닌, 그렇다고 다른 어떤 인물도 아닌, 관찰자요 중재자로서의 코러스의 대사로 극을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인물명을 나열하면서 그 순서를 Philoctetes, Hercules, 그리고 Odysseus로 하여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Philoctetes와 Odysseus의 중간의 위치에 Hercules를 배치함으로써 결합할 수 없을 듯한 두 인물을 연결시켜주며, 또한 대단원을 암시하고 준비하는 효과도 거둔다. 이어서 신과 영웅을 거쳐 인간과 희생자가 언급되면서 그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서로가 깊은 자기연민에 빠져 그 상처만을 중히 여기느라 삶을 낭비하고 자기 상처만 앓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임으로써, 북아일랜드의 실상을 냉정하게 객관화시켜 무대 위에 제시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Odysseus의 대사 역시 앞서 Sophocles가 그린 Odysseus의 대사와 다르다. Heaney의 Odysseus는 웅변조의 강건체가 아닌 간결한 대화체로 첫 대사를 시작하며, 영웅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그려진다 할 수 있다. 그는 첫 대사에서 "Yes. I left Philoctetes here./ Marooned him -- but/ Only because I had been ordered to./ I did it, all the same." (3)라고 말함으로써 Philoctetes를 Lemnos 섬에 유기한 것이 자신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순전히 자의적인 유기가 아님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그 당시로서는 그 상처의 발작이 너무 심하여 다른 군사들과 도저히 함께 움직일 수 없었음을 "We couldn't even get peace at the altar/ Without him breaking out in these howling fits./ And slabbering and cursing./ He was putting us on edge." (3-4) 라고 말하여, Sophocles의 경우보다는 다분히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내 보인다.

Heaney는 상처받은 Philoctetes의 극단적인 불신을 그리는 점에서는 Sophocles의 어조를 거의 누그러뜨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Odysseus의 책략의 간교성에서는 상당히 철회하여 합리화의 명분을 부여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Neoptolemus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Heaney의 Odysseus는 다음의 대사에서 나타나듯, 현실적으로 보다 '현명한 방법'이 필요함을 역설함으로써 회유라기보다는 절제된 어조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다.

Odysseus

Neoptolemus. There's a noble streak in you
And You're a strong man.
Truly your father's son.
But the job here can't be faced head-on.
Force isn't going to work.
So, if parts of this brief seem puzzling to you,
Just remember: you're here to serve our cause. (6)

Odysseus는 Neoptolemus에게 그의 고귀한 혈통과 강인한 정신을 상기시키면서 Lemnos섬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대의적 명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적 영광과 화려한 보상을 약속하며 회유하는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Heaney의 장치는 근본적으로 극작의 의도가 Sophocles의 그것과 다름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Sophocles가 그의 극에서 보다 형이상학적인 가치의 대립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Heaney의 경우는 좀더 구체적인 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Heaney는 조국 북아일랜드의 상황을 냉정하게 동족의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서로 자기 상처의 고통만을 호소하며 그 상처의 치유로부터는 멀어져만 가는 현실을 통찰하자고 말하고자 했다고 보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Heaney는 Sophocles의 경우와는 달리, Philoctetes의 지나친 자기 연민³⁾을 지적하고, 동시에 Odysseus가 대변하는 상황논리의 당위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Odysseus의 극단적인 책략가로서의 면모도 어느 정도는 희석하여 그리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극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읽고자 하는 본 논문의 입장에서 다음의 글은 매우 도움이 된다.

... the production, as opposed to the published text, did appear to have a clear and specific political resonance contained within the set. (Stephen Rea and Bob Crowley, direction, and Crowley, design, *Cure at Troy*, by Field Day) ... the set of the premiere's production in Derry's Guildhall in October 1990 was dominated by the fallen head of a giant statue. The head functioned as Philoctetes's cave, and it was from there that he first emerged, his accent, as played by Des McAleer in the original production, that of strident Unionist Ulster. ... in the context of a production in Derry and, perhaps, even in London, the fallen Empire is inevitably read as that of England, with Philoctetes the embattled and embittered Unionist who remains behind when all substantial meaning to his existence has collapsed. This allusion is heightened by the echo of "Ulster Says No" in Neoptdemus's question to Philoctetes: "Are you going to stay here saying no forever[?]"(69) More generally, the fallen head can be read as a fragmentation of any absolute power that still retains the loyalty of those whom it once sustained. (112)

위의 인용문은 Richard Shaun이 이 극의 초연 당시 무대장치를 소개한 글로써, Heaney 극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예가 되고 있다. 이 극의 초연 무대는 북아일랜드에서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도시인 데리(Derry)시의 길드홀에서 있었는데, 당시 그 무대는 Philoctetes가 거처하는 곳으로 제시된 동굴의 모습으로 가득 차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몰락한 대영제국의 이미지임을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형상지어진 동굴에서 강한 얼스터(Ulster)의 엑센트로 말하는 Philoctetes가 나올 때 그는 통합파(Unionist)의 상징적 인물임이 너무도 확연해 보였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Heaney에게 있어서는 Philoctetes의 가치도 용서와 화합을 지향하는 것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대사가 많이 눈에 띄어, 인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황을 보다 부각시키고 그 상처의 기억을 어떻게 다스려나갈 것이며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의지를 보게 된다. 그는 상처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며 응징을 다짐하는 것만이 과연 명예를 지키는 길인가를 묻고, 상대방을 연민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태도를 강조한다. 더욱이 이러한 대사가 상처의 기억에 더욱 깊이 사로잡혀 있는 Philoctetes를 통해 말해짐으로써 그 의미는 배가된다. 다음

3) 'Philoctetes'라는 이름은 "lover of possessions"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Gregory McNamee, 'Sophocles' *Philoctetes*, in *Ancient/Classical History, About: The Human Internet*, 2)

의 Philoctetes의 대사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Philoctetes

...

Life is shaky. Never, son, forget
How risky and slippery things are in this world.
Walk gently when the cup's full, and don't ever
Take your luck for granted. Count your blessings
And always be ready to pity other people. (27)

이와 같이 Heaney가 인물이나 가치가 아닌, '상처'와 그 '치유'를 강조한 것은 다음의 코러스의 대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상처뿐임을 말하는 Philoctetes에게 코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의 상처는 스스로 키운 것이며 이제 증오로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을 그만둘 것을 지적한다.

Chorus

Your wound is what you feed on, Philoctetes.
I say it again in friendship and say this:
Stop eating yourself up with hate and come with us. (61)

상처에 대한 그릇된 원망을 접고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Neoptolemus의 대사도 마찬가지로인데, 여기서 다른 점은 극한상황으로까지 내몰린 현실에 대한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Neoptolemus

...

You're a wounded man in terrible need of healing
But when your friends try, all you do is snarl
Like some animal protecting cubs.

...

The snake-bite at the shrine was from a god,
But the gods send remedies, and they expect
Obedience then as well.

You are to come

Of your own free will to the town of Troy. (72)

위의 대사에서 Neoptolemus는 인간의 자유의사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사실상 신의 의지임을 말함으로써 'deus ex machina'를 통한 대단원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Heaney의 대단원은 코러스를 통해서 양측의 깊고도 깊은 상처를 강조하고 상기시키면서 Sophocles의 극과는 다른 그만의 무대를 보여준다.

Chorus

Human beings suffer,
 They torture own another,
 They get hurt and get hard.
 No poem or play or song
 Can fully right a wrong
 Inflicted and endured.

The innocent in gaols
 Beat on their bars together.
 A hunger-striker's father
 Stands in the graveyard dumb.
 The police widow in veils
 Faints at the funeral home. (77)

위의 대사에서 'A hunger-striker's father'는 제도적 차별에 고통받아 온 공화파의 현실을 상징하며, 'the police widow in veils'는 공화파의 폭동에 대한 무력방어전에서 희생된 통합파의 유족이 안게 된 상처를 나타낸다. 이렇게 서로를 고문하며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치유의 묘약으로서 Heaney는 Hercules의 상징적 등장을 택한다. Heaney 자신은 이 대단원에 대해 그것이 적어도 'deus ex machina'에서는 벗어나도록 하고자 했음을 초연의 프로그램 노트에서 밝힌 바 있다.

... I have attempted to present the conclusion as the inevitable culmination of an honestly-endured spiritual and psychological crisis rather than as the result of supematural intervention. ...

Sophocles의 경우보다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장치를 사용하였지만 'deus ex machina'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는 남을 수 있다. Philoctetes의 극적인 반전에 대해 Philoctetes 자신은 마지막 대사를 통해 육감(80)이라는 해석을 붙이기도 하는데, 더욱이 이에 대한 코러스의 'And the half-true rhyme is love.' (81)라는 응수는 이 극을 더욱 신비한 영역으로 남겨두게 한다.

VI

사실상 이 극의 신비한 대단원은 이 극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시적인 특성을 마무리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Heaney가 유독 *Philoctetes*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 극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시인인 Heaney가 간과하지 않았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Les Gutman은 Heaney가 서정적 묘사에 치중한 나머지 인물이나 상황에 있어 극적 전개를 소홀히 했다고까지 지적하기도 한다.

... he [Heaney] frequently falls back on his considerable skills in lyrical description instead of developing his characters and situations dramatically. (1)

그런가 하면 Shaun O'Connell은 Heaney를 'the creature of academic-poetic complex'(3)라고 표현하면서 이 극의 서정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 극이 지닐 수 있는 정치적 성향으로부터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는 Heaney가 구미 문화계의 주류를 의식하여 어느 정도 학자연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Helen Vendler가 Heaney의 작품세계에 대해 'the matter of Ireland'로부터 'what was the matter with Ireland'로 옮겨가고 있다(13)고 보는 시각과도 흡사하다고 하겠다.

Heaney는 한 편지에서 이 극을 쓰게 된 동기로, Edmund Wilson의 'The Wound and the Bow'를 읽고 매료된 경험을 든 적이 있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윤리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라든가, 인간은 보통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오히려 그 상처 혹은 상처 받은 영혼에 대한 자존심이 더 크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무절제하고 자기도취적인 문화에 힘 입어 현실적으로 만연하는 그릇된 자긍심과 악한 영혼의 분출들을 목격하고 이를 해결할 'golden mean'을 제시해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McDonald 4-5 참조)

Edmund Wilson은 그의 유명한 에세이 'The Wound and the Bow'에서 Philoctetes를 사회 속의 예술가의 모습으로 읽고 있다. 상처 받고 소외되었으면서 세상의 일상사에 참여할 내적 자질도 또한 결여되어 있는 예술가의 속성이 Philoctetes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Heaney는 *The Cure at Troy*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의 조국과 민족을 애기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상처의 역사와 그 상처로 고통 받아 온 사람들의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면서, Sophocles가 제시한 명예와 수치의 문제, 개인적 도덕과 대의적 가치의 갈등, 그리고 사적인 성실성과 정치적 도의의 차이 등을 다시 묻고 있다. 그가 제시한 대단원의 모호함은 그만큼 북아일랜드 사태의 해결이 어려운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Heaney의 무대에 와서 *Philoctetes*는 정치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책을 찾고자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극으로 재현되고 있다.

(중부대학교)

인 용 문 헌

Gutman, Les, 'The Cure at Troy,' Ed. Elyse Sommer, *CurtainUp*, 1997.

Heaney, Seamus, *The Cure at Troy*, London: Faber and Faber, 1990.

, *Program Notes for the Premiere*, Guildhall, Derry, 1990.

McCartney, Clem, 'Striking a balance: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Accord*, Vol.8

McDonald, Marianne, Seamus Heaney's *Cure at Troy*: Politics and Poetry, *Classics Ireland*, 1996 Vol. 3, University College Dublin, Ireland.

McNamee, Gregory, 'Sophocles' *Philoctetes*, in *Ancient/ Classical History*, About: The Human Internet, Tucson, Arizona, 1986

O'Connell, Shaun, "Famous Seamus: Poetry, Politics & Polemics in Ireland," *The Boston Phoenix*, 1992.

Richards, Shaun, "Field Day's Irish Tragedies," 109-119, *Modern Drama*, Vol. XLIII, No. 1, Spring 2000.

Sophocles, *Philoctetes*, Trans. R. Torrance, in *Philoctetes and The Fall of Troy*. Ed. O. Mandel. 1981.

Vandler, Helen, *Seamus Heaney*, London: HarperCollins, 1998.

<Abstract>

The Politics in *The Cure at Troy*

Sunoak Chun
Joongbu University

Nobel laureate Seamus Heaney's first and only play *The Cure at Troy* presents a great opportunity to ponder the political situation of Northern Ireland and at the same time the fundamental human situation.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story is credited to Homer. Heaney based his play on Sophocles' *Philoctetes*, and modernized the language, juxtaposing dialogue and verse. *The Cure at Troy* has moments of poetic elegance and sheds modern light on an ancient subject. This paper tried to emphasize the supposed connection between this play and the situation in Heaney's native Northern Ireland.

In his play, Heaney seems as interested in the notion of a play's capacity for healing as he is in the story he is attempting to relate. Philoctetes was a Greek soldier, famed for having inherited the bow and arrows of Hercules. After being bitten by a snake while enroute to war with the Trojans he developed a smelly abscess that would not heal. His fellow warriors abandoned him on a deserted island for ten years, and this gave him a deeper wound than snake-bite itself. The triangle of Odysseus' strategic approach, young Neoptolemus' sense of morality, and the wrath of victim Philoctetes represents a deep-rooted history of conflicts between the Unionists and the Republicans in Heaney's country.

In spite of the long history of suffering in the country, *The Cure at Troy* is a play that proceeds from, and ends in, optimism. It is a version truly urges and hopes "for a great sea-change/ On the far side of revenge." Heaney has about the same number of lines as the Sophoclean original, but he has altered the text in some parts, especially the opening and closing scenes. Heaney focuses on the theme of the wound and the cure, not the heroes. While Sophocles concentrates on the bitter hero, the original sharp edges have been polished in Heaney's play. Heaney shows the pitfalls of honor coupled with the festering wound of memory. It is clear that Heaney is in favor of a cure, or healing, and he uses Greek tragedy to distance and yet make familiar the

major issues of conflict. Heaney's symbolic representation of Hercules also implies an expectation of difficult but possible and hopeful solution of the complex political situation.